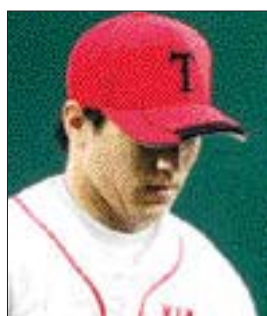


세계정당인이다! 원상복합인 공포스포츠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로 산동 (당첨후환영)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unashy.co.kr 0801 320-7700



실책 때문에... 답답한 KIA

세세함이 4강을 좌우한다. 롯데와의 격차를 1게임차로 줄이며 4위 입성 D-데일로 삼았던 지난 23일, KIA는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삼성킬러' 이범석을 내세우고도 초반 연달아 터진 실책으로 3-6 아쉬운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승부를 가른 건 수비였다. 경기 시작과 함께 1회 이범석의 삼성전 15이닝 무실점 행진이 마감됐다. 2회 1사에서 유격수 김선빈(사진)의 1루 약송구가 나왔다. 평정심을 잃은 이범석은

루키 김선빈 맹활약 불구

결정적 수비 실책 아쉬움

총 11개 팀내 최다 불명예

연속안타로 1점을 내준 뒤, 보크까지 범하면서 0-2로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아쉬운 수비로 경기를 시작한 KIA는 이어진 1회말 상대 호수비에 대량득점의 기회를 놓쳤다. 1사 1루, 장성호의 안타성 타구가 1루수 채태인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면서 아웃카운트만 늘었다. 이제 주와 최희섭의 연속 2루타로 바로 2-2 동점을 이루기는 했지만 잊갈린 수비가 아쉬움 수 밖에 없었다.

힘든 1회를 보낸 이범석은 2회 연속 불넷에 이어 번트 수비를 하다 실책을 하나 더 늘렸다. 결국 우동균에게 싸늘이 3루타를 허용한 이범석은 1과 3분의 2이닝 동안 6실점하며 강판돼 '삼성킬러'라는 별명을 받았다. 초반 실책으로 넘어간 KIA는 추격의 길목마다 상대 수비에 막혔다. 3회 행운의 안타가 되는 것 같았던 선두타자 이용규의 타구를 2루수 신명철이 내야

플레이로 만들어 버렸고, 5회 무사 1루에서 또 다시 이용규의 매서운 타구가 1루수 채태인에 의해 땅볼로 둔갑하면서 추격 의지가 꺾였다.

매일 순위가 뒤바뀌는 박빙의 4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실수는 치명적이다. 순위 확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7월 들어서만 KIA는 1점차 승부를 7차례나 치렀다.

팀 4강만큼이나 팬들의 관심사인 신인왕 타이틀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실수'다. 삼성 최형우와 함께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KIA 김선빈은 23일 경기에서 1회 결정적인 수비 실책을 저지른 뒤 2회 김주형과 교체됐다.

경험 미숙과 처음 치르는 프로 무대에서 '올림즈' 때문이었을까? 신인왕

후보 김선빈은 23일까지 11개의 실책을 범해 팀내 '실책왕'의 불명예를 쓰고 말았다.

김선빈은 지난 9, 1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이를 연속 내야플레이를 놓치면서 팀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13일 SK와의 경기에서도 6회 1점차의 아슬한 리드 상황에서 김선빈의 송구 실책이 동점으로 이어졌고, 결국 팀은 역전패를 당하는 등 루키 김선빈의 실책이 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팀과 본인 모두 곤혹스럽다.

팀 4강, 그리고 23년 만의 신인왕을 거머쥐기 위해 세밀하고 프로다운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현대카드 회원의날 행사

2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KIA 타이거즈-현대카드 회원의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

이번 행사는 프로야구 열기를 높이기 위해 특정 기관단체나 기업체가 참여하는 '네임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현대카드 우수회원 및 가맹점주 5천명과 사단법인 장성 상록원생 60명이 무료초청을 받았

다. 이날 경기에 앞서 경기장 주변에서는 선수들의 팬 사인화와 기념촬영, 페이스 페인팅 등 행사가 치러졌다.

또 추첨을 통해 현대카드 측에서 마련한 PDP, 드림세탁기, 노트북 등의 경품이 제공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단체 '금빛 스트라이크'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

한국이 2008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미란-이혜미(이상 평택시청)-이연지(곡성군청)-전귀애(고흥실고)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여자부 단체전(4인조

결승에서 일본을 805-741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4강 토너먼트에서 독일을 825-813으로 제압한 한국은 결승에서 전기예를 비롯해 세 명이 10프레임에서 각각 200점 이상을 쳐 함께에서 일본을 60점 이상 차로 따돌렸다.

한국 대표팀은 여자부 개인전 금메달과 2인조 동메달을 포함해 지금까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박성화호 투톱 최적의 조화는?

박주영·이근호·신영록 주전 경쟁 치열

박감독, 최근 컨디션 좋은 신영록 극찬



박주영



이근호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의 최전방 투톱은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할까.

최종엔트리 18명 중 최전방 공격수 자원은 박주영(23·서울)과 이근호(23·대구), 신영록(21·수원) 세 명이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박주영과 이근호는 이미 검증된 선수라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왔고, 치열했던 '제3의 공격수' 경쟁을 뚫은 신영록은 기동력이나 상대 수비를 헤집는 힘의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최종엔트리 확정 후 23일까지 사흘 훈련을 지켜본 박 감독은 공격수 트리오 중 신영록의 상승세를 주목했다. 박 감독은 "신영록이 아주 좋다. 컨디션이 좋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말로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신영록의 슈팅 감각과 몸 상태를 만났다.

활용방안도 암시했다. 박 감독은 "신영록이 조커 타입은 아니지 않느냐. 신영록이 선발로 나서고 박주영이 조커로 투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박주영과 신영록이 선발 투톱으로 호흡을 맞출 수도 있다.

신영록이 박 감독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주전 투톱 경쟁은 더욱 불을 뿜게 됐다. 이근호는 그 동안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 왔고, 반면 극심한 골 가뭄으로 마음 고생이 심한 박주영도 서서히 '킬러 감각'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강도높은 체력 훈련 중 실시된 9대9 미니 게임에서 이근호는 헤트트리를 기록했고, 박주영도 한 골을 넣었다. 신영록은 두 골을 터뜨렸다.

박 감독은 메달 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해 줄 카메룬과 올림픽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의 선발 투톱에 대해 "누굴 내보낼 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상대에 가장 효과적인 투톱을 구상하고 있다.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30일 홍콩에서 열린 4개국 올림픽대표팀초청 국제대회(ING컵) 카메룬-네덜란드전을 직접 관전하면서 카메룬전 필승 구상을 할 계획이다.



24일 오후 파주 NFC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과 성균관대의 연습경기에서 신영록(왼쪽)이 성균관대 골키퍼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1군 복귀 오늘 야쿠르트전 출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주포 이승엽(32·사진)이 102일 만에 1군에 복귀한다.

이승엽의 통역인 정창통씨는 24일 "오늘 코칭스태프로부터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 1군에 올라가게 된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이승엽이) 25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전부터 곧바로 출전한다"고 말했다.

교토통신은 이승엽의 1군 복귀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고 "컨디션은 많이 회복됐다.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 어떤 역할을 부여받더라도 착실하게 수행하고 싶다"는 이승엽의 소감을 함께 실었다.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은 "다음 5경기에는 오른손 투수가 많이 선발로 나온다. 힘을 보여주고 싶다. (이승엽의

복귀로) 즐겁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승엽과 외야수 가메이 요시유키, 투수 니시무라 겐타로가 1군에 올라오고 전반기에 등판 계획이 없는 투수 세스그 레이싱어 등 3명이 말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4월12일 타격 부진으로 2군으로 간 이승엽은 만 석 달이 지난 102일 만에 1군 무대를 밟게 됐다.

이승엽은 25~27일 도쿄돔에서 야쿠르트와 3연전을 치르고 28~29일은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방문 경기에 나선다. 1군 다섯 경기에서 일본 투수들과 상대하며 실전 감각을 쌓은 뒤 30일 귀국해 다음달 1일 소집되는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추신수 2안타 2타점

박찬호 10이닝 무실점

미국프로야구 콜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26)가 멀티히트로 2타점을 올렸고 LA 다저스의 박찬호(34)도 셋업맨으로 나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애인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애인절스와 경기에 좌익수 겸 5번 타자로 나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252로 올랐고 타점은 23점째, 득점은 23점째를 올렸다. 콜리블랜드는 그러나 11-14로 역전패를 당했다.

박찬호는 콜로라도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록키스와 경기에 3-5로 뒤진 7회말 선발 구로다 히로키를 구원 등판, 2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박찬호는 이로써 불펜으로 보직을 바꾼 뒤 나선 2경기를 모두 완벽히 막아내며 평균 자책점을 2.51로 끌어내렸다. LA는 추가점을 내는 데 실패하고 3-5로 졌다.